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래창조 금융 · 따뜻한 금융 · 튼튼한 금융
	11.2(월) 조간부터 보도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		
책임자	최용호 산업금융과장 (2156-9750)	담당자	신상훈 사무관 (2156-9764)
배포일	'15. 10. 30(금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9매

제목 :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「 기업은행 · 산업은행 역할 강화 」

-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원기능이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조정됩니다.
 - 기업은행은 창업·성장초기 지원을 대폭 확대 :
연간 9.1조원('14년, 비중 19.8%) ⇨ 15조원('18년, 비중 30.0%)
 -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 ⇨ 중견기업·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 :
연간 21.6조원('14년, 비중 35.0%) ⇨ 30조원('18년, 비중 50.0%)
- 산업은행의 주요 지원대상이 기존 주력산업(중후장대)에서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.
 -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간 지원액 : 연간 13.5조('14년) ⇨ 20조원 이상('18년)
* 기업은행 : 연간 29.6조원('14년) ⇨ 33조원 이상('18년)
 - 경기민감·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
- 산업은행의 IB 업무는 민간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선도 또는 시장실패 보완 기능 중심으로 개편됩니다.
 - * 해외채 발행, 해외 PF, 중기 M&A, 통일관련 SOC, 사업재편 PEF 등
- 산업은행이 장기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는 3년간 집중 매각합니다.
 - '신속매각·시장가치매각' 원칙에 따라 정상화된 출자전환기업(5개), 5년 이상 투자한 중소·벤처 등(86개)을 우선 매각 등 처리
- 산업은행은 개편방향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합니다.

※ 금융위원회(위원장: 임종룡)는 10.29(목) 금융개혁회의(의장 : 민상기)에서 “창의·혁신·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「기업은행 · 산업은행 역할 강화」 방안”을 의결 · 발표

○ 금번 방안은 정책금융의 개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위, 학계, 연구원, 정책금융기관, 금융업계, 산업계가 공동으로 T/F를 구성하여 협업·추진

⇨ 10.8일 공청회(금융연구원 주관)와 10.29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발표

I. 추진배경

- 설립이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('14년 잔액 비중 94%)로 금융애로를 완화하고, 산업은행은 대기업 위주('14년, 30%)로 주력 산업에 적극적 금융지원을 하는 등 실물경제를 지원
- 다만, 일반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거나 시장마찰로 인해 민간 금융 발전을 구축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
- 아울러, 정책금융기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,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금융과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

※ 박근혜 대통령은 '15.8.6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“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의 개혁”을 강조

II.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

창의·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

- 1 : 창의·기술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
- 2 :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
- 3 : 보유 관리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처리

1 창의·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할 강화

(1) 평가 : 시장실패 보완과 민간 금융시장 육성 필요

□ 그 동안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는 상존

① 창업 증가('08년 5만개 → '14년 8.4만개)에도 불구하고, 생존율은 저조하고 중소기업 다수가 영세·생계형 기업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성이 미미

* 창업 3년 후 생존율(%): (호주)62.8, (이스라엘)55.4, (미)57.6, (한)41.0

② 증가는 직접 금융시장(회사채, 주식 등)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

- 최근 벤처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으나, 창업 초기보다 IPO 직전의 후기 투자 기업 비중이 높은 현실

⇒ 창의·혁신·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완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, 직·간접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

(2) 추진방향 :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

① 기업은행 : 창업·성장 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, 투자기능을 보완

① 창업·성장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, 연간 1,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

② 투자 기능(現 비중 0.6%)을 보완*하여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

* '15년 벤처금융팀을 신설하였으며, 직·간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약 2배 확대할 계획

② 산업은행 : 중견기업 육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투자를 확대하여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

①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, 중견후보 육성프로그램*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장지체(피터팬 증후군)를 방지

- 중견지원·예비중견 지원 확대 :

(‘14) 연간 21.6조원(비중 35.0%) → (‘18 목표) 30조원(비중 50.0%)

* 중견후보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금리우대, 컨설팅, 우선투자 지원

②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LP투자·공동투자 등 간접투자를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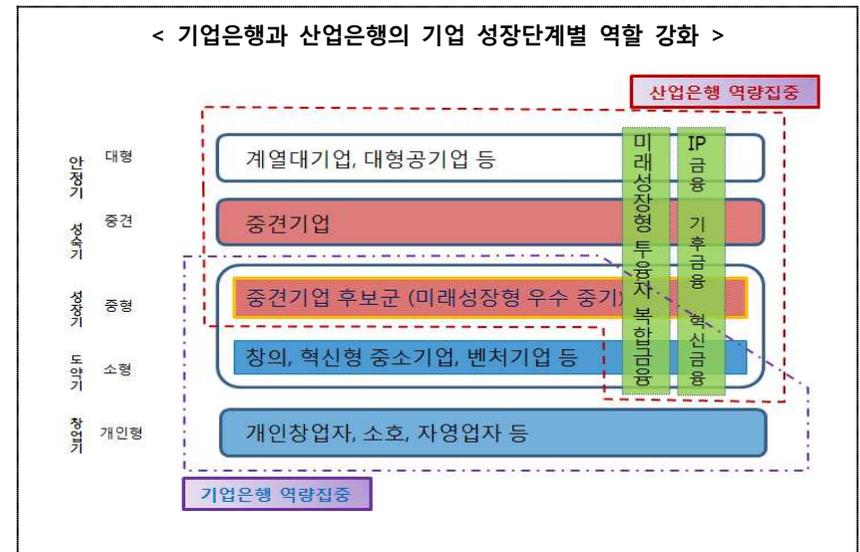
⇒ 우수한 엔젤·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을 강화

* 창업·벤처 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와 간접투자 확대

(‘14) 4,621 억원(공동투자 222, 간접 4,399) → (‘18 목표) 5,500억원 이상

⇒ 벤처투자가 초기보다는 후기(IPO 직전)에 쏠리는 현상을 시정하고 투자회수의 병목현상을 완화

* 성장기업 M&A 기능을 강화하고, 세컨더리펀드(약 2,000억원 규모)를 조성·운영



③ 아울러, 기업 및 민간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포털 개편을 추진

① 기업금융나들목(정책금융포털) : '16년 중 개편을 통해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개선

* 현재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운영 중이나,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하여 정책금융 정보의 연계성과 질을 제고

② 기업투자정보마당(클라우드펀딩 플랫폼) : 다양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

- 정책금융기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굴한 창업·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펀딩, 엔젤,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제공

- 플랫폼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매칭투자 지원

※ 기대효과 :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정책금융 환경을 조성

① 데스밸리(Death valley)에서 자금애로를 완화하고, 투자방식의 지원을 확대

기업은행 : 창업·성장초기 ('14) 연간 9.1조원[19.8%] ⇨ ('18 목표) 15조원[30.0%]

②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을 강화하여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

산업은행 : 증견 예비증견 ('14) 연간 21.6조원[35%] ⇨ ('18 목표) 30조원[50.0%]

③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클라우드펀딩, 엔젤·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모험자본 형성을 촉진

2 미래성장동력 지원 및 구조조정 역할 개선

(1) 평가 : 경기민감 산업 등 업종별 편중 지원에 대한 재점검 필요

□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기업은행·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55.4조원
(경기민감 산업 例 : 조선, 해운, 건설, 석유화학, 철강, 자동차)

*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은행권 전체 대출(168.3조원) 중 기업은행·산업은행의 비중은 32.9%

⇒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여신을 선제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, 향후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
(2) 추진방향 :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구조조정 역할을 개선

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

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, 기술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기술금융과 투자지원을 확대

* 미래성장 지원 : 산업은행 ('14) 연간 13.5조원 ⇨ ('18 목표) 20조원 이상 (+48.1%)
기업은행 ('14) 연간 29.6조원 ⇨ ('18 목표) 33조원 이상 (+11.4%)

* 미래성장동력 例 : 지능형로봇, 착용형스마트기기, 스마트바이오, 신재생하이브리드 등 19대 분야

② 미래성장동력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지원

② 기업구조조정 역할 개선 : 선제적·체계적인 관리·정리·회수노력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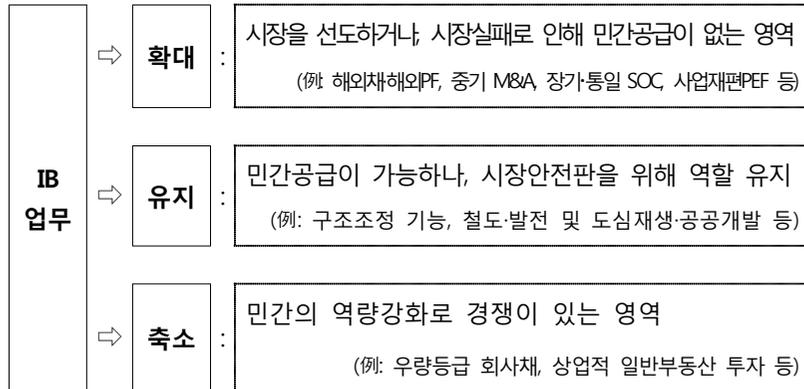
① 경기민감 기업에 대해 여신시스템·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

②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·수시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

③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엄정히 판단하여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

③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 기능을 개편

- ①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을 '중기특화 증권사'로 육성('16.1분기) 하여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
- ② 산업은행의 IB 기능은 미래성장, 해외진출, 통일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·개편하고, 시장마찰을 야기하는 상업적 목적의 IB 기능은 축소



※ 기대효과 : 실물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제고

- 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, 나아가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

산업은행 : ('14) 연간 13.5조원 ⇒ ('18 목표) 20조원 이상 기업은행 : ('14) 연간 29.6조원 ⇒ ('18 목표) 33조원 이상
--

- ② 경기민감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와 시장안전판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

3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적극적 매각 추진

- (1) 평가 : 정책금융 지원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투자로 선순환 필요

□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, 중소·벤처 투자 등의 목적으로 비금융회사를 보유 관리 중

* (5% 이상 출자) 377개, 장부가액 9.2조원 / (15% 이상) 118개, 장부가액 2.3조원

○ 다만, 일부 보유 기업의 매각 등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투자기간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야기

* 자회사(15%이상, 118개) 중 5년 이상 투자 기업 : 출자전환 6개, 중소벤처 86개

⇒ 정책 목적이 달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매각 등을 추진하고,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여 정책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할 필요

- (2) 추진방향 : 3년간 적극적 매각을 추진하고, 관리체계를 개선

① '신속매각·시장가치 매각' 원칙을 수립하여 적극적 매각을 추진

* 매각가치 극대화 원칙 고수에 따른 매각지연을 개선하여 신속한 매각을 추진

○ 정상화된 출자전환 기업, 5년 이상 투자한 중소·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도별 매각계획을 수립하고,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

* 아울러, 집행과정에서 매각계획에 포함된 기업 매각시 임직원 면책을 통해 적극적 매각을 유도

② 산업은행내 (가칭) '자회사관리위원회'를 신설·구성하여 보유 중인 비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

* 산은회장, 집행임원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, 외부전문가 풀(pool)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

○ 同 관리기구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취득·관리·매각 등全过程를 관리

※ 기대효과

- ① 정상화 회사·5년 이상 투자한 중소·벤처의 조속한 매각 후 새로운 기업으로 재투자하여 정책금융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
- ② 비금융회사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전문성·투명성을 강화

Ⅲ. 향후 추진 계획

기업은행·산업은행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은 각 은행이 '16년 업무 계획부터 반영하여 수립하고,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
(‘15년말 승인시부터 적용)

산업은행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전면적인 조직·인력 개편을 통해 쇄신을 추진('16.1/4분기)

* 조직·인사 개편 중점 추진 분야 :

- ① 여신심사·기업신용평가 강화 ② 기업 구조조정 인력 강화
- ③ IB 기능개편에 따른 재정비 ④ 미래성장·중견기업 지원 강화
- ⑤ 자회사관리위원회 지원 조직 신설

※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